

人工凍結工法의 特性과 適用

김 영 진*

1. 머리말

산업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최근의 토목·건축공사는 그 규모의 大型化, 종류의 다양화와 함께 공사현장 선택의 폭이 좁아진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지반조건이 좋지 않은 현장에서도 부득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공사수행과정에서 지하수 오염방지와 같은 환경대책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시공여건이 날로 어려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사고방지를 위한 유효적절한 補助工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人工凍結工法은 인공적으로 地盤을 凍結시켜 일시적인 흙막이벽, 방호벽 등으로 이용하는 補助工法의 하나로서 다른 보조공법을 이용할 경우 공사의 안전과 확실성에 의문이 따르는 현장 즉, 공사로 인해 하천의 流路 단면적이 줄어들 염려가 있다거나, 도로 교통량에 많은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있거나, 기존 매설물을 이설하지 않고 공사를 수행하려는 현장 등에서 주로 적용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적용실적이 없으나, 외국에서는 이미 각종 都市土木工事, 광산용 수직생 봉괴방지 공사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공법이다.

국내에서도 현장여건에 맞게 인공동결공법

의 특성을 잘 살려 보조공법으로 활용할 경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本稿에서 이 공법에 대한 특성과 설계·시공법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인공동결공법의 원리 및 특성

2.1 원리

지반을 동결시키기 위해 미리 직경 10~20cm 되는 先端部分이 폐쇄된 강관(동결관)을 지중에 매설한 후 강관속으로 brine 부동액 또는 액체질소를 순환시켜 강관을 계속 빙점이하의 온도로 냉각시킨다. 시간이 경과하면 강관 주변지반의 간극수가 얼기 시작하면서 강관을 중심으로同心圓 모양의凍土柱가 형성된다. 강관을 필요한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매설하면 인접한 동토주가 서로 합쳐져 연속적인 동토벽체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동토벽체는 차수성이 높고, 역학적으로 큰 강도를 발휘하므로 이를 흙막이 벽 또는 방호벽으로 사용하여 목적하는 공사를 수행한다.

本工事 완료후에는 自然的 또는 강제적으로凍土壁을 용해시킨다.

凍結形式은 施工方法에 따라 i) 管列凍結方式과 ii) 平板凍結方式으로 구분하거나(그림1), 凍結面의 斷面形狀에 따라 i) 全凍土型, ii) 圓柱型 iii) 상자형 iv) 門型 v) 기타로

* 정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실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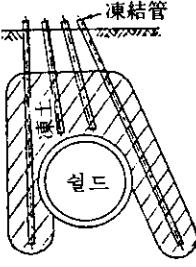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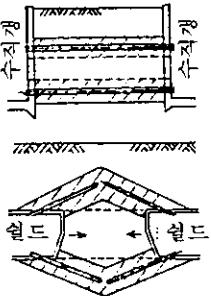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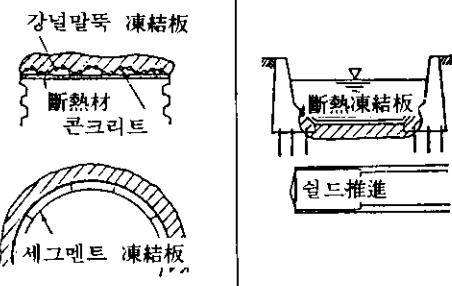
管列凍結方式		平板凍結方式	
施工方法	垂直보링(boring) · 垂直凍結管 · 傾斜凍結管	水平보링(boring) · 水平凍結管 · 上(下)方向凍結管	壁面利用 · 강널말뚝 부착凍結板 · 세그멘트 凍結板
적용例			

그림 1. 施工方法에 따른凍結形式⁽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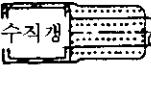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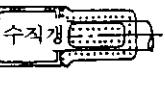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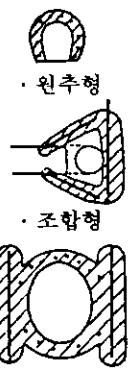
全凍土型		圓柱型	상자형	門型	기타
동면도	수직갱	수직갱	수직갱	수직갱	· 말굽형 · 원추형 · 조합형
횡단면도					
적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 토질에 가능 · 수직갱 굴착과 병행하여凍結管 배설등 가설 공사 가능 · 동결관 연장이 길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보링이 가능한 경우 · 가설공사 중 수직갱내 타작업 불가 · 동결관 연장 짧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左同 · 左同 · 동결관 연장이 비교적 짧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토질에 가능 · 수직갱 작업과 병행하여 가설 작업 가능 · 下부에 불투수층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질 조건에 따라 좌우됨
시공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부 점유 또는路面복공 필요 ·凍土 굴착량이 많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부 점유적음 · 동토굴착량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左同 · 左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上부의 점유 또는 노면복공 필요 · 동토굴착량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조건 따라 좌우됨

그림 2. 斷面形狀에 따른凍結形式⁽¹⁾

구분할 수 있다(그림 2).

냉각 방법으로는 강관 속을 순환시키는 물질에 따라 brine 부동액을 이용하는 방법과 액체질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냉동설비 및 지반동결 규모가 달라진다.

(1) brine 부동액 이용방법

동결 셋트(set)는 냉각기, 압축기, 응축기, 냉각탑 및 순환펌프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3 참조) brine 부동액(염화칼슘수용액으로서 비중 1.286일 때 동결온도 -55°C)이 냉각기에서 $-20^{\circ}\text{C} \sim -30^{\circ}\text{C}$ 정도로 냉각된 후 순환펌프에 의해 지중에 매설된 강관으로 보내짐으로써 지반이 동결된다. 지반으로부터 열을 빼앗아 온도가 높아진 brine은 냉각기로 되돌려져 다시 냉각된 후 강관으로 보내지는 순환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동토가 차츰 성장하게 된다. 한편 압축기에서 압축된 푸레온 가스는 응축기에서 냉각수에 의해 냉각되어液化되고, 냉각기에 보내져 온도가 높아진 brine 부동액의 열을 빼앗아氣化된 후 다시 압축기로 돌아오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地中의 열은 강관 \rightarrow brine \rightarrow 냉각기 \rightarrow 프레온가스 \rightarrow 응축기 \rightarrow 냉각수를 거쳐 대기중에 방출된다.

이 방법은 동결셋트를 여러 개 조합할 경우 $200\text{m}^3 \sim 35,000\text{m}^3$ 정도에 달하는 대량의 동토를 생성할 수 있어 대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방법이며, 후술하는 액체질소 이용방법에 비해 시공실적이 많다.

(2) 액체질소 이용방법

tank lorry에 의해 운반된 액체질소(비등점 -196°C)를 직접 지중에 매설된 강관으로 보내 그氣化熱로 지반을 동결시킨다. 지반으로부터 열을 빼앗아 기화된 질소 가스는 대기중에 배출된다.(그림 4 참조)

이 방법의 장점은 지반의 동결속도가 빨라工期를 단축시킬 수 있고, 기계설비가 간단하며 brine 부동액 이용방법에 비해 지하수의 흐름이 빠른 지반에서도(대략 10m/day) 적용이 가능한 점이다. 단점으로는 규모가 작고(동결토량 200m^3 이하)工期가 짧은 공사에 적용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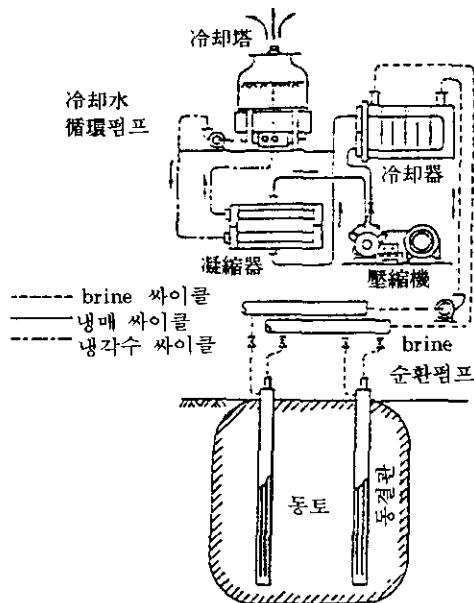


그림 3. brine 부동액 이용방식⁽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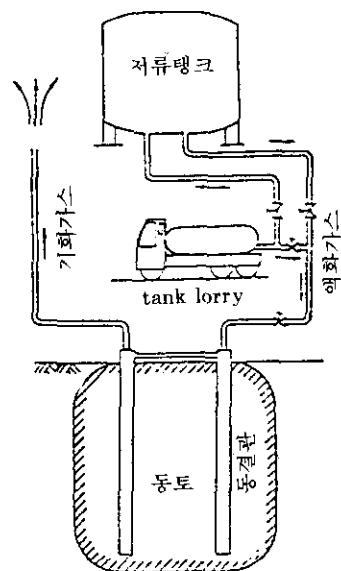


그림 4. 액체질소 이용방식⁽²⁾

다는 점과 배기가스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brine 부동액 이용방법에 비해 시공실적이 적다.

2.2 인공동결공법의 특성

인공동결공법의 장점으로는 i) 강도 및 차수성이 뛰어나 동토벽만으로 耐力壁 또는 차수벽의 역할이 가능하다. ii) 강재나 콘크리트와의 凍着力이 크므로 이를 부재와 연속 또는 합성된 벽구조를 만들 수 있다. iii)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을 이용하므로 지반의 불균질에 관계없이 일정한 강도의 동토벽을 형성할 수 있다. iv) 목적하는 공사가 끝나면 융해시키므로 지반이 오염되거나 장애물로 남는 일이 없다.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i) 동결설비의 설치 가격이 비교적 높다. ii) 동토벽이 형성되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다. iii) 어느 한도를 초과하는 지하수의 흐름이 있을 때는 이것이 加熱源의 일종으로 작용하므로 동토벽의 형성에 어려움이 따른다. iv) 지반에 점토나 실트(silt) 등 세립토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동결팽창으로 주변 구조물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 동결이론

3.1 동결속도

지반중에서 동결면이 성장하는 속도(동결속도)를 계산할 때 강관주변의 지반이 동심원 모양의 凍土柱로 성장하는 제1단계일 때는 통칭 單管理論을 적용하고, 인접한 凍土柱가 결합되어 板狀의 凍土壁體를 이룬 후 그 두께가 점차 두꺼워지는 제2단계에서는 平板理論을 적용하는데¹⁾ 이러한 이론은 매우 복잡하므로 실용상으로는 圖表를 이용하고 있다(그림 5 및 그림 6 참조). 그림 5에서는 초기 지반온도(θ^∞) 및 냉각온도(θ_c)가 변화할 때 냉동기稼動日數와 凍土柱의 반경과의 관계를 單管理論에

의해 계산하여 도표화한例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 지반온도가 낮거나, 냉각온도가 낮을수록 동일 기간내에 凍土柱의 반경이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럼 6에서는 地中溫度 18°C, 냉각온도 -20°C인 조건에서 동결판 매설간격을 80cm로 하였을 경우의 凍土成長曲線의 계산例를 보여주고 있다. 凍結日數 약 20일 때 凍土柱가 결합되고, 그 이후부터는 平板理論에 의해 凍土壁體의 성장을 계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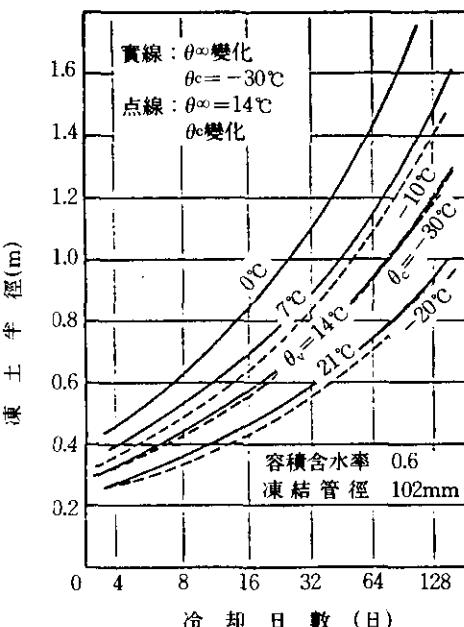


그림 5. 냉동기 가동일수와 凍土半徑⁽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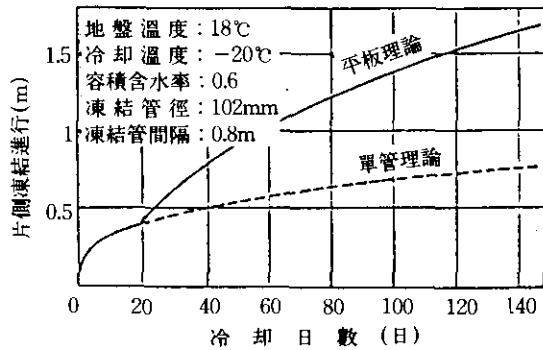


그림 6. 凍土成長曲線⁽²⁾

3.2 温度分布 및 凍結負荷

실제 시공을 할 때는 地盤中의 고정된 위치에서 온도를 측정하여 凍土成長을 추정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凍土 및 未凍土中의 온도분포를 미리 계산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凍土의 強度는 온도에 따라서 다르므로 凍土壁을 耐力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온도변화에 따른 強度를 설계단계에서 미리 계산해 놓아야 한다(표1 참조). 이러한 경우도 單管理論 및 平板理論에 의해 필요한 시점의 온도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³⁾ 또한 凍結管列에 의한 凍土內 온도분포식⁴⁾도 제안되어 있으며, 이 아론식을 이용하여 凍結管列의 평균냉각온도를 구한 후 동결속도를 계산할 때 平板理論에導入함으로써 정확한 凍結速度를 얻을 수 있다.

凍結負荷는 냉동기 용량 또는 액체질소 소비량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어느 시간에 있어서의 凍結領域의 온도분포를 알면 그 시간의 热負荷를 구할 수 있다. 热負荷는 냉각開始때에는 크고, 시간경과와 함께 서서히 작게 된다. 이러한 負荷도 單管理論 및 平板理論에 의해 계산되며, 凍結管列 理論을 이용하면 더욱 精度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融解理論

4.1 냉동기 가동 중지에 의한 融解

정전이나 고장에 의해 冷凍機가 돌연 정지했을 경우 동토의 融解速度를 판단하는 것은 安全上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냉동기 가동 정지 후의 1차원적인 융해속도(dx/dt)는 식(1)과 같이 표시된다.

$$\frac{dx}{dt} = \alpha_0 \frac{\sqrt{K_1}}{\sqrt{A t_c + t}} \quad \dots \dots \dots \quad (1)$$

여기서

α_0 , A : 지반의 热定數나 온도조건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定數

K_1 : 凍土의 温度 전파율

t_c : 냉동기 가동시간(냉동개시부터 정지까지의 냉각시간)

t : 냉동기 정지 후의 경과시간

식(1)에서 장기간 냉각을 계속할수록 냉동기 정지 후의 융해속도가 늦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2 加熱에 의한 強制融解

공사가 완료된 후는 신속히 凍土을 융해시켜 원래의 지반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좋다. 凍土의 融解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加熱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強制融解라고 한다. 強制融解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사중에 凍結管으로 이용했던 강관에 溫水를 순환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 때 강관을 중심으로同心圓 모양으로 융해가 진행되므로 解析的으로는 凍結의 逆現象으로 취급할 수 있다.

5. 인공동결공법의 計劃 · 設計 · 施工

5.1 計劃

人工凍結工法은 다른 보조공법을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는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종 지반조사와 현장시험의 결과들을 충분히 분석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 계획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사항을 알아보면,

(1) 凍結管 매설을 위한 보링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수직 및 수평 보링 구간의 지반상태, 장애물 유무 등을 검토한다.

(2) 凍結 對象地盤이나 부근에 냉각에 지장을 줄 加熱源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검토 및 대책을 세운다. 예로써 流量이 많은 큰 하천 하부에서 土被두께가 2m이하일 때 또는 가동중인 幹線 上·下水道管에 근접하여 凍土를 형성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방호대책이 필요하다.

(3) 동결팽창변위의 허용치와 예측치의 상대적 관계를 검토한다. 점토·실트 지반에서 凍結에 의한 채적팽창량을 제로(0)로 하는 것

는데, 이때 未凍結地盤은 응력을 받으며, 수평변위를 일으킨다.

高志⁸⁾는 동결관 중심으로부터 반경 r_1 인 未凍結地盤이 탄성적 거동을 보인다고 보고 응력(σ_r)과 수평변위(δ_r)를 나타내는 식을 식(4) 및 (5)와 같이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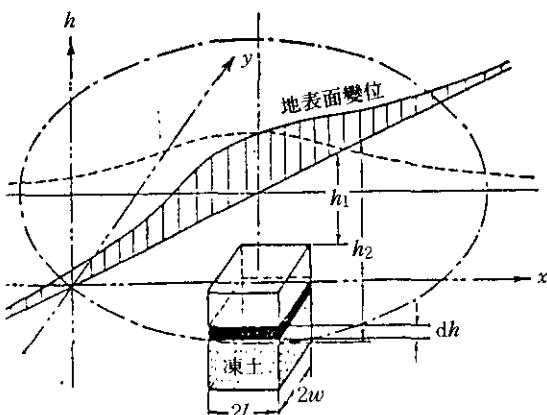


그림 7. 동결팽창에 의한 地表面變位의 계산 모델⁽⁶⁾

$$\sigma_r = \sigma_\infty + (\sigma_{r1} - \sigma_\infty) \frac{r_1^2}{r^2} \quad \dots \dots \dots \quad (4)$$

$$\delta_r = (\sigma_{r1} - \sigma_\infty) \frac{1+\nu}{E} \frac{r_1^2}{r} \quad \dots \dots \dots \quad (5)$$

여기서,

σ_∞ : 미동결 영역에서의 半徑方向의 주응력

σ_{r1} : 동결영역과 미동결영역 경계면에서의 응력(팽창력)

ν : 미동결지반의 포아슨비

E : 미동결지반의 탄성계수

r_1 : 동결관 중심으로부터 동결영역 外端까지의 반경

지반의 동결팽창 메카니즘에 대한 규명 및 동결팽창 억제 대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동결팽창 그 자체를 없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결팽창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대책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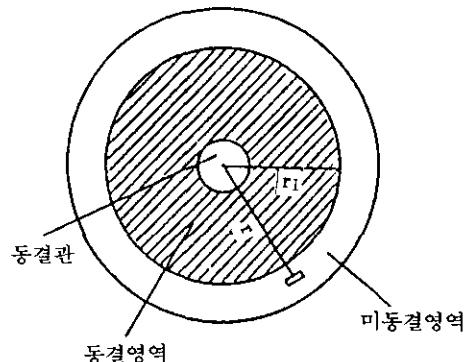


그림 8. 동결모델⁽⁸⁾

- i) 재한된 凍結管을 사용하거나, 때로는 加熱管을 사용하여 동결변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 ii) 凍土形成 순서등을 검토하여 가능한 한 팽창량을 水平方向의 變位만으로 흡수하는 방법
- iii) 보링에 의한 지반의 이완과 동결팽창량과를 상쇄시키는 방법
- iv) 간극수의 粘性을 인공적으로 증가시켜 凍結面으로의 吸水量을 억제시키는 방법
- v) 미리 變位吸收孔을 설치하여 地表面이나 地下構造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5.3 施工

(1) 施工管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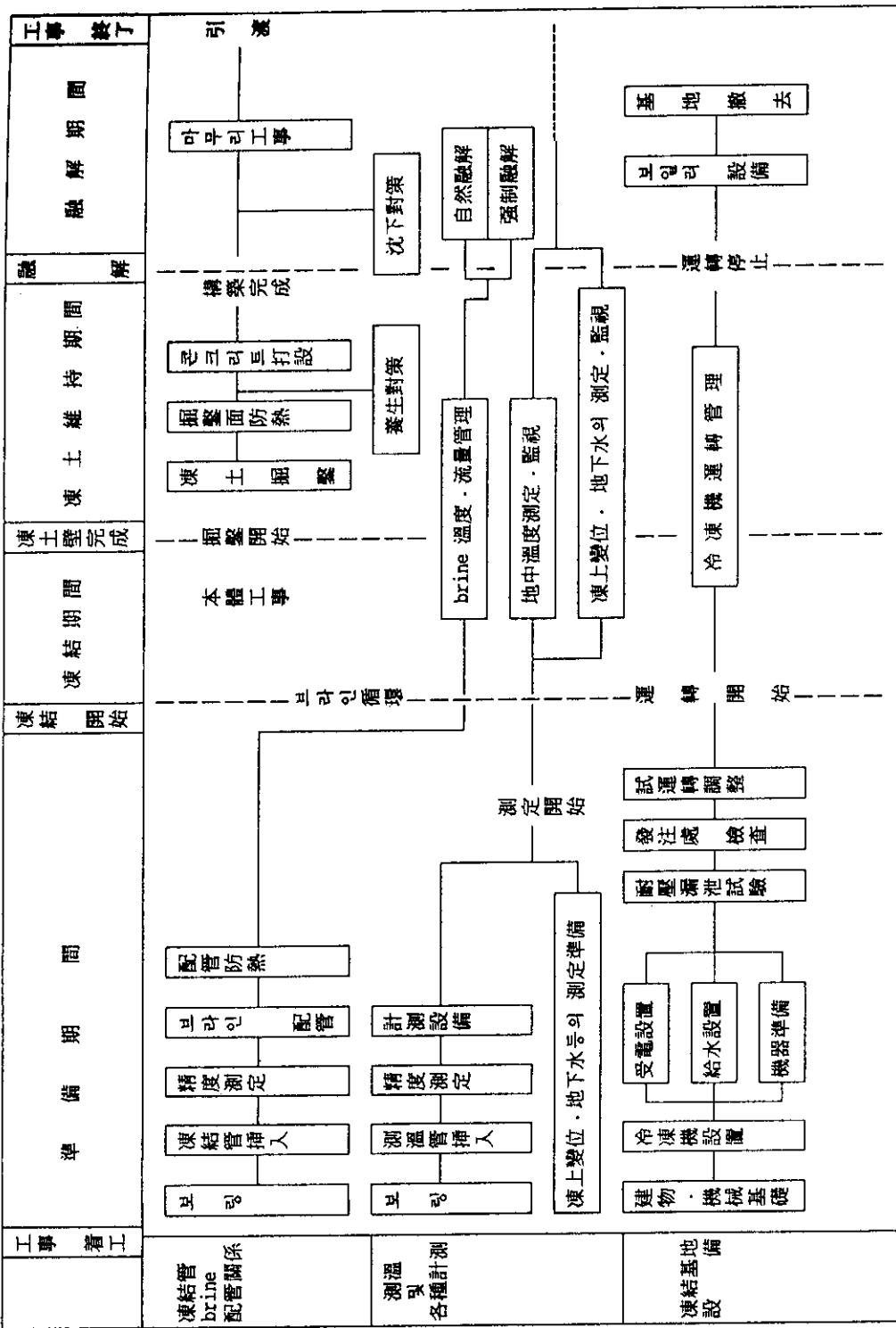
인공동결공법의 시공단계는 크게 i) 준비 단계(플랜트설비, 동결관 매설) ii) 동결단계(필요한 동토 조성) iii) 동결유지(本體工事) iv) 철거(용해)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표 2 참조).

시공관리의 주요한 것은 냉동기 운전관리와 동토관리이다. 냉동기는 보수 및 예측치 못한 사태에 의한 정지 이외에는 주야간 계속 가동 한다.

냉동기 운전에 따른 brine 순환의 관리로서 brine 出入口 測度, 流量의 점검 및 누출점검, 공기 빼기 등이 있다.

凍土管理는 成長管理와 維持管理로 나누며,

표 2. 인공동결공법의 표준 시공순서



성장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보링시凍結管과地中 온도계측용관의 매설오차를 實測하여兩者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地中溫度 計測方法에는 定點測定과 深度別 移動測定이 있는데 지중온도 계측결과는 바로 graph化하여 經時變化를 보면서凍土成長 상황을 파악한다.

유지관리 중 중요한 것은 削鑿凍土面의 관리이다. 凍土面이 직접 장시간 외기에 노출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굴착면을 쇠트(sheet)나 防熱材로 보호하여 外氣의流入을 막도록 한다.

(2) 동결관 설치

시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서 보링기술에 따라 회전식, 충격식, 터빈(turbine)식, 복합식 등 여러가지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동결관 설치시 관의 침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그 기준치는 수직으로 설치할 때 1/200 이내, 경사지게 설치할 때 1/100 이내이다.¹⁾ 경사계에 의한 계측을 통해 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다시 착공을 하거나 동결관을 증설한다.

6. 人工凍結工法 適用事例

6.1 河底 橫斷工事에 사용된 事例

본 공법 개발초기의 적용사례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지하철, 상하수도가 있다. 특히, 지하철건설을 위한 공사에서 인공동결공법이 채택된 주된 이유는, 현장이 간선도로 밑에 있으므로 교통량, 지하매설물이 많다거나, 이것들을 규제·처리하기 곤란할 경우, 또는 하천의 유효단면적을 확보하여야만 할 때, 강바닥으로부터의 土被가 적을 경우 및 기타의 제약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림 9는 독일의 마인강바닥 횡단 지하철공사에서 사용했던 예이다.⁹⁾ 터널하부의 지반조건이 좋아서 터널 상부에만 馬蹄形의 동토를

만들었다. 이 지하철은 강의 앞쪽에서 2개의 터널로 나뉘어지는데 약 200m 길이의 강바닥 부분을 30m마다 동결공법으로 防護하고, 順次掘進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깊은 우물에 의한 수위저하공법과 NATM 공법을 병용하였다. 이 방법은 스위스의 상수도공사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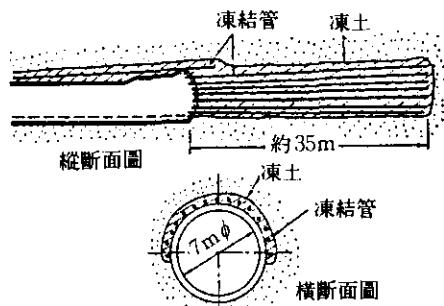


그림 9. 河底橫斷 地下鐵工事에 이용된 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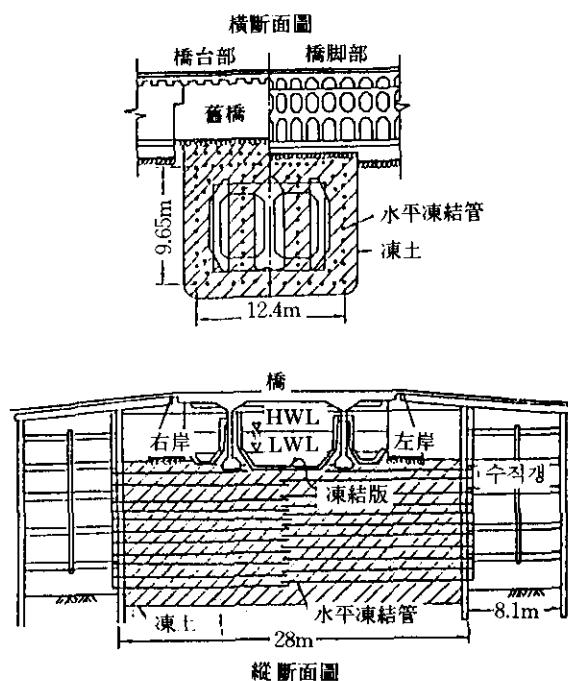


그림 10. 河底橫斷 地下鐵 工事에 이용된 예(2)

그림 10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동결공법이 지하철공사에 사용되었던 예이다.¹⁰⁾ 현장 근처에서 시험동결을 하였으며, 동토의 遮水性과 強度를 확인한 후에 본 공事が 수행되었다. 강바닥부분에는 동결판이 사용되었고, 본체의 동토벽은 수직방으로부터의 수평동결판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구축단면 안에 上部荷重을 받기 위한 2줄의 동토벽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11은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한 대규모 공사의 예이다.¹¹⁾ 鉛直凍結管에 의해 全橫斷面內를 동결한 것으로 全凍土型이라고 부르고 있다.

냉동기설비 900kW, 동결관 연장 17.9km, 동결토량은 3만m³ 이었다. 이 공사에서는 동결팽창성이 큰 흙을 주위에서부터 둘러싸는 형태로 동결했기 때문에, 그 팽창력과 변위에 의해 전동결관의 7% 정도가 손상을 입었으며, 게다가 누출된 brine이 동토를 침식할 우려가 있었다. 다행히, 굴착작업 전에 발견했기 때문에, 손상된 동결관을 복구, 중설해서 냉각능력을 보강하고, 누출된 brine에 의한凍土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세정작업을 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뒤에 공사를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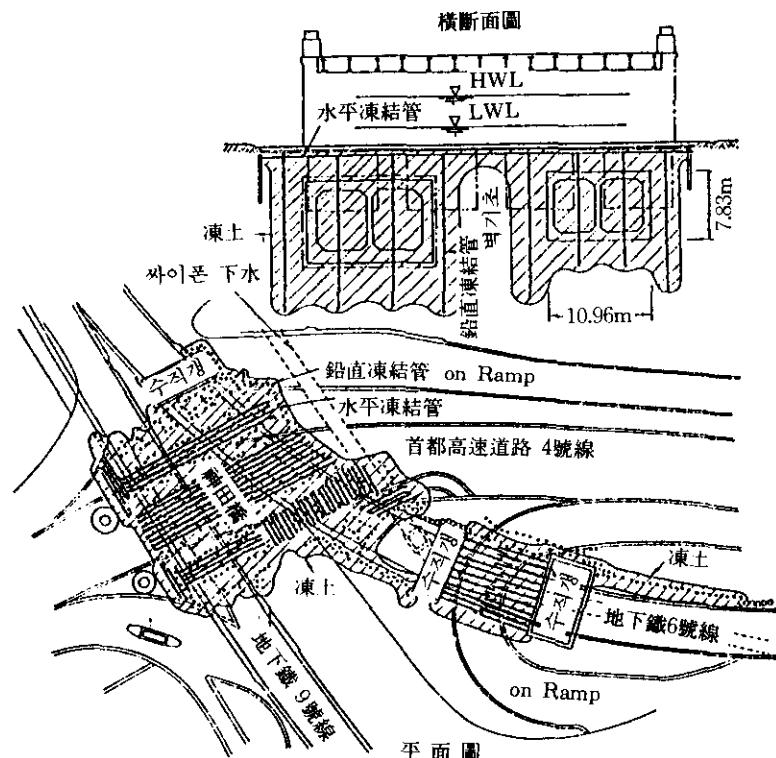


그림 11. 河底横断 地下鐵工事에 이용된 예(3)

그림 12는 연직동결관, 수평동결관, U자형의 굽어진 동결관 등 3종류를 사용해서 구조물 주위에 동토벽을 조성한 예로, 강바닥부분 土被가 1.5m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결판을

사용, 河底部의 동결을 강화하였다.¹¹⁾ 이 현장에는 동결팽창에 의한 교각의 凍土變位를 억제하기 위해 凍土壁 안쪽에 배수관을 설치하고, 동토에 둘러쌓인 미동결부의 간극수를 진공펌

프로 탈수하여 여분의 수분을 약 $13m^3$ 정도 뽑아내어, 최종적으로凍上量을 10mm 이하로 억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림 13은 지하수의 流速이 약 5m/sec인 지반중의 適水를 주목적으로 해서 동토벽을 조성한 예이다.¹⁰⁾ 河底部凍結版과 鉛直凍結管을 사용했으나, 橋台밀부분은 네모통이의 수직갱에서부터 扇形동결판을 매설하였다. 토압은 흙막 이용 형지지말뚝이 받고, 하천수에 의한 하중은 강재 beam·강관말뚝이 받는다.

그림 14는 세계 최대규모의 동결공사이다.¹²⁾ 냉동기설비 112.5kW, 凍結管延長 19km, 동결 토량은 3만 8천 m^3 로 수평동결판에 의한 全凍土型이었다. 아래와 같은 제약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이유로 동결공법이 채택되었다.

① 橋上의 교통량이 많고, 대폭적인 교통규제가 불가능하다.

② 하천은 조석간만의 차가 약 2m이고, 강우 때 갑자기 물이 불어나므로 유로단면적의 축소가 불가능하다.

③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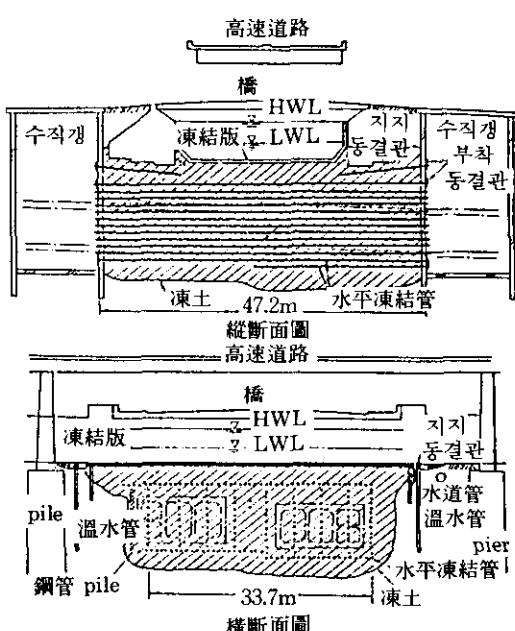


그림 12. 河底橫斷 地下鐵工事에 이용된 예(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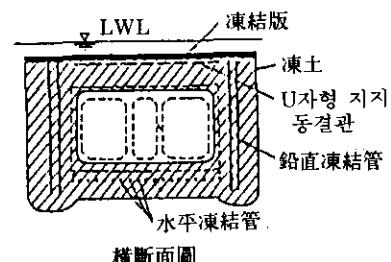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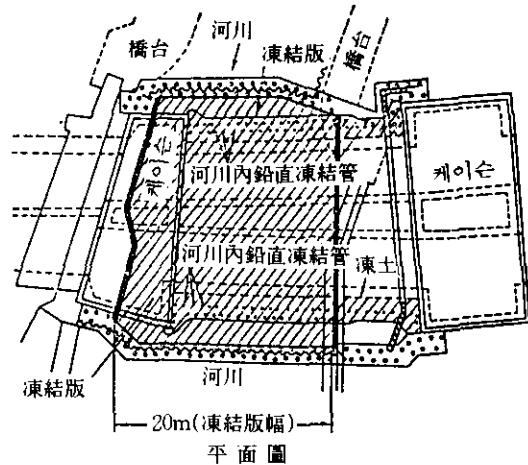


그림 13. 河底橫斷 地下鐵工事에 이용된 예(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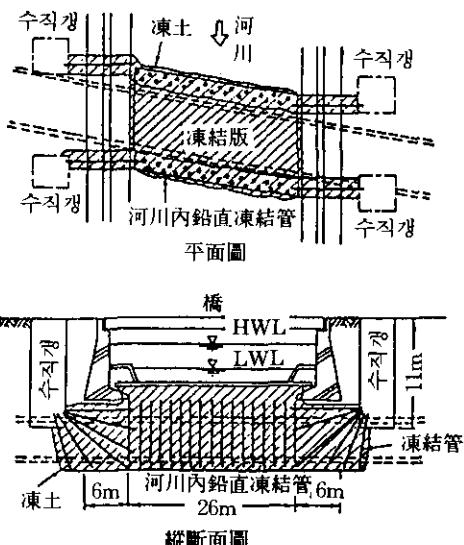


그림 14. 河底橫斷 地下鐵工事에 이용된 예(6)

- ④ 地下鐵路線 경사의 제약 때문에 구조물 위에 충분한 土被를 유지할 수 없다.
 - ⑤ 하천 우측 언덕에 집들이 밀집되어 있다.
 - ⑥ 상공에 고가고속도로가 있고 그 pier가 근처에 있다.
 - ⑦ 장래의 교량복구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또한, 이 현장에서는 공사완료 후 동토융해

시 온수순환에 의한 강제융해법을 사용했다.

그림15¹⁵⁾및 그림 16은 하수도 공사에 사용된 예인데, Hume管에 합해진 형상의 동토벽을 이용 것과 하천수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동결판보다 간단한 모양의 河床으로 굽어진 동결관 및 중설수평동결관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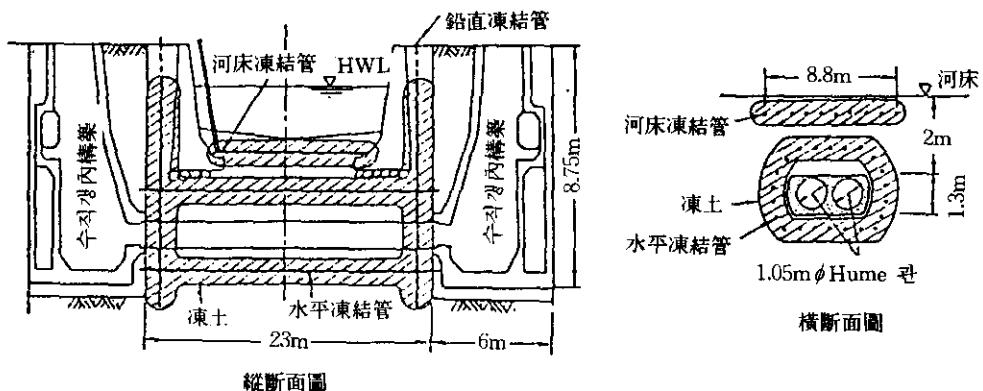


그림 15. 하저횡단 하수도공사에 이용된 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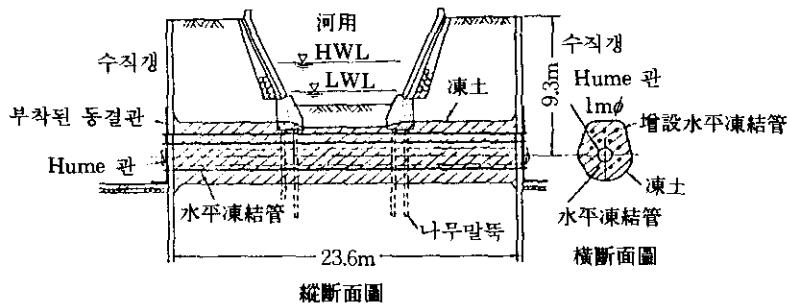


그림 16. 하저횡단 하수도공사에 이용된 예(2)

6.2 철도 및 도로밀 횡단에 사용된 사례

철도는 중요한 구조물의 하나로서, 작은 변위도 문제가 된다.

철도밀을 횡단하는 상하수도 공사에, 다수의 인공동결공법 적용 예가 있는데, 수평동결관만

으로 원통형 동토를 조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고, 동결토량도 많지 않았으며, 동결팽창영향도 적은 효과적인 공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밑을 횡단하는 공사에도 사용되지만, 2개의 건물사이의 지상도로 교통을 제한·폐쇄하지 않고 지하연결도를

시공한 예도 있다.

그림17은 철도밑 횡단에서 사용한 공업용 수도공사의 예이다.¹³⁾ 이 현장에서는 횡단면 상부를 동결하여 하부 boring시 철도에 미치는 영향을 없앴다. 또한, 동결팽창에 의한半

徑方向의 crack이 동토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 사실이 이 현장에서 확인되었으며, 이후부터 이러한 원통형 동토의 경우, 중심부에凍結膨脹壓을 줄이기 위한解放孔을 설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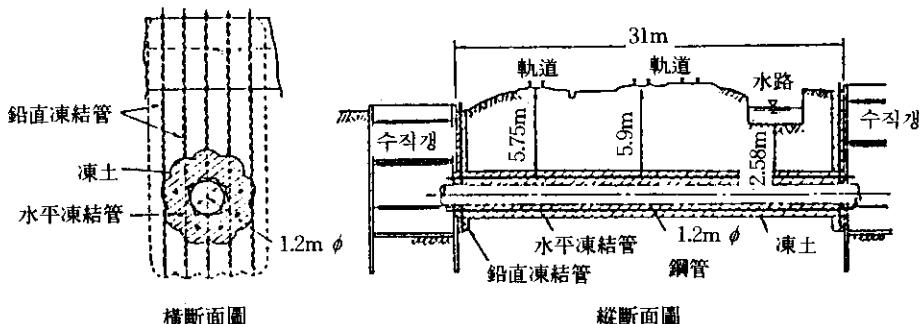


그림 17. 철도횡단 공업용 수도관공사에 이용된 예

6.3 Shield 공사의 보조공법으로 사용된 사례

연약지반이나 帶水砂層의 Shield공사에 수직坑으로부터의 發進, 到達部에는 얼마간의 防護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동결공법의 동결형식으로는 全斷面凍土, 門型凍土, 圓筒形凍土등이 있으며, 토질이나 Shield 종류 등에 따라서 선택된다. 또한, Shield가 작은 꼭 률반경으로 방향전환을 할 경우에 동토벽을 反力壁으로 이용하는 방향전환 예와 이미 설치된 shield에 枝管이 되는 Shield가 접속한 예 및 2개의 Shield가 地中接合한 예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공건수는 수백 건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동결공법 실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8은 하수도공사에 사용된 예로써, 두 방향으로의 Shield 發進과 한 방향으로의 도달에 이용되고 있으며 동토는 원통형이다. 수직坑을 굴착할 때에도 이용되었으며, 수직坑用 연직동결관은 Shield 발진 및 도달시 해당부분만 뽑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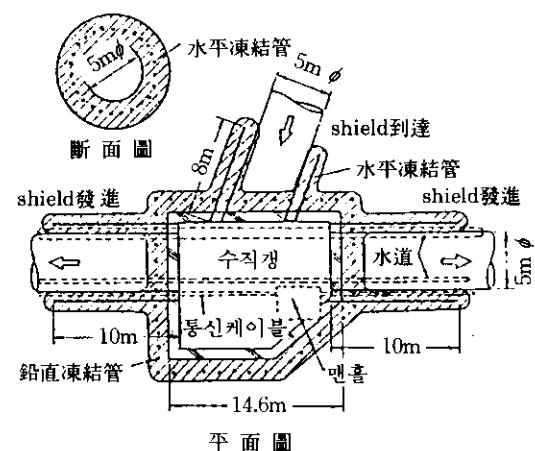


그림 18. 하수도공사에 이용된 예(1)

그림 19 및 20은 모두 Shield 발진에 사용된 예이나 그림 19는 연직동결판만으로써 직경 8.5m 토압 벨런스식 Shield의 발진방호를 실시한 예이며, 그림 20은 연직과 수평 두형태의 동결판을 사용하여 방호를 실시한 예이다.

그림21은 신간선 공사에 사용된 예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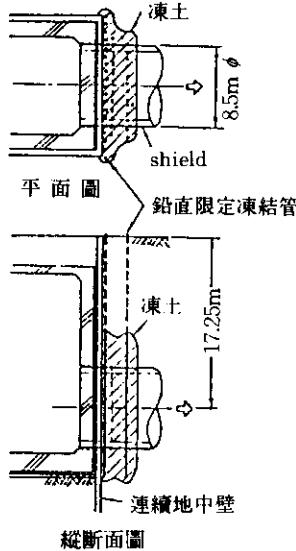


그림 19. 하수도공사에 이용된 예(2)

Shield 직경은 약 13m이고, 發進部 상부에만 방호한 것이 특징이다. 이 현장에서는 건물이 근접해 있어서 동결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간극수의 점성을 증가시켜 흡수량을 억제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다.

그림22는 하수도공사에서 사용한 急曲線防護의 예이다.¹⁴⁾ 연약 Shield충 내에 직경 4.9m의 Shield가, 반경 12m 및 14m의 원호를 그리며 전진하는 부분에서 사용된 것이다. 동토벽을 반력벽으로 하여 jack으로 Shield 본체의 방향을 바꾸면서 掘進하였다.

그림23은 하수도공사에서 枝管接續할 때 사용되었던 예로써 현재 사용중인 하수도관에 접속한 것이 특징이다. 特殊맨홀도 동시에 동결공법으로 시공하였다. 하수도 상부까지 우선 수직갱을 파내리고, 下水에 의한 加熱은 하수도관 내에 U字刑鋼 by-pass를 설치하여 피하였으며 이후, 管內로부터 매설한 부채모양의 凍結管群으로 연속동토벽을 만들고, 하부까지의 수직갱을 완성하였다. 수직갱 완성후의 枝管接續은 도달부공사와 동일하였다.

그림24는 하수도공사에서 地中接合에 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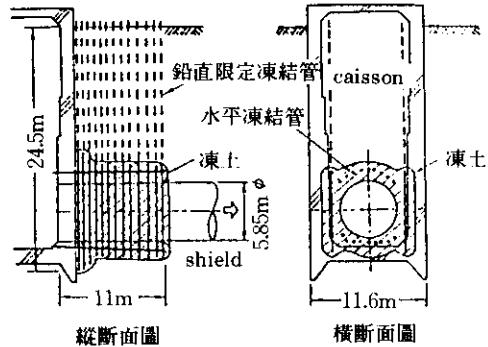


그림 20. 하수도공사에 이용된 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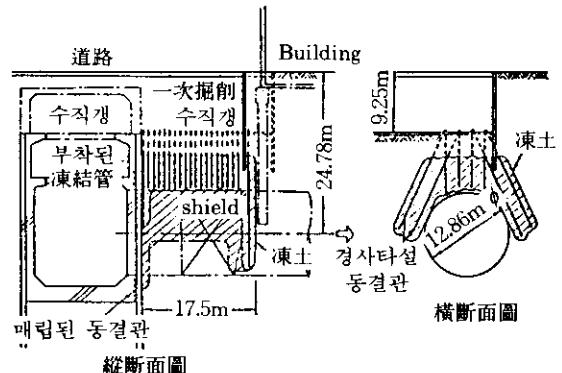


그림 21. 신간선공사에 이용된 예

동결공법이 사용되었던 예로서¹⁵⁾, 동결관은 모두 직경 약 3m의 Shield 안에서부터 鑿孔한 것이 특징이다. 접합부는 細砂地盤내에 있었으며, 따라서 충격식 boring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25도 地中接合에 사용되었던 예이지만, 똑 같은 장소에서 깊이가 서로 다른 2곳에서의 동시공사에 사용되었다.¹⁶⁾ 연직동결관과 segment 동결관이 사용되었고, 특히 연직동결관은 上段 및 下段에서의 접속에 유효하게 이용되었다.

6.4 수직갱 굴착에 사용된 事例

施工事例가 가장 많고, 대부분이 광산용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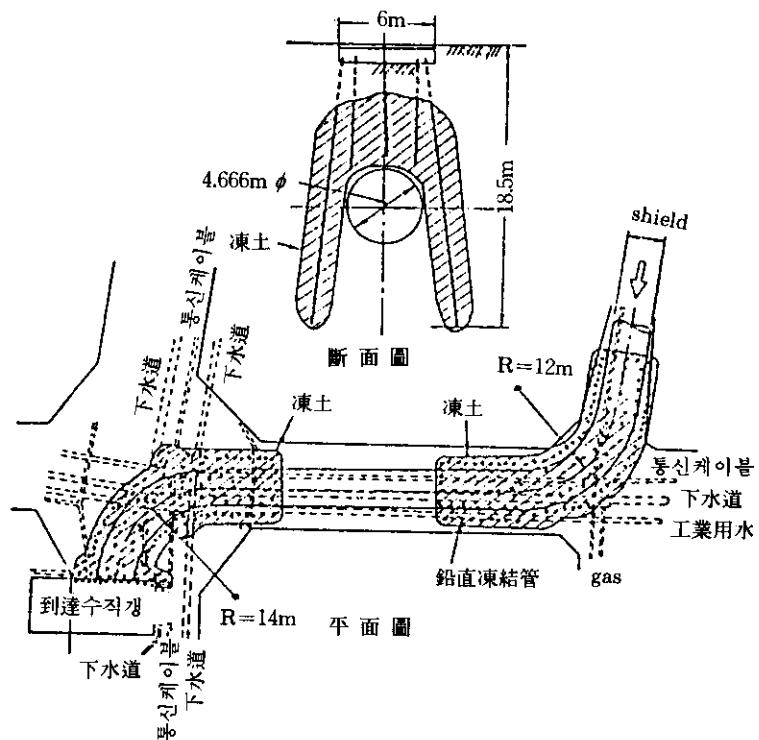


그림 22. 하수도관 Shield 공사에 이용된 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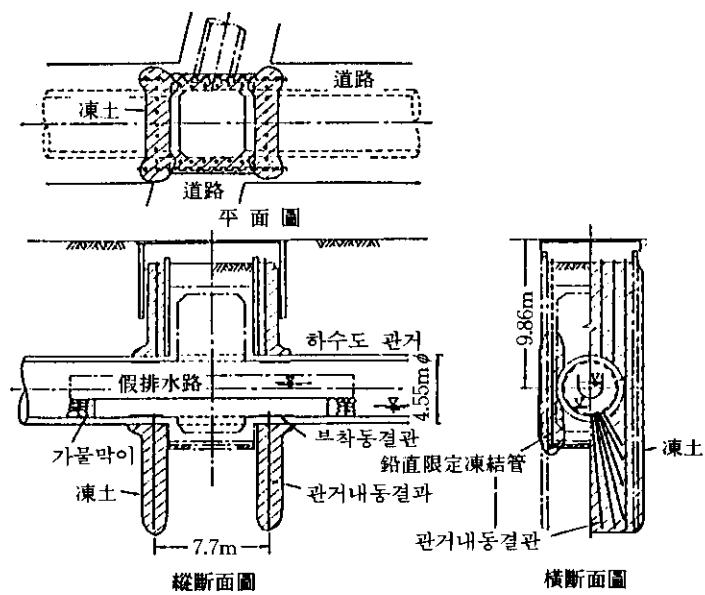


그림 23. 하수도관 Shield 공사에 이용된 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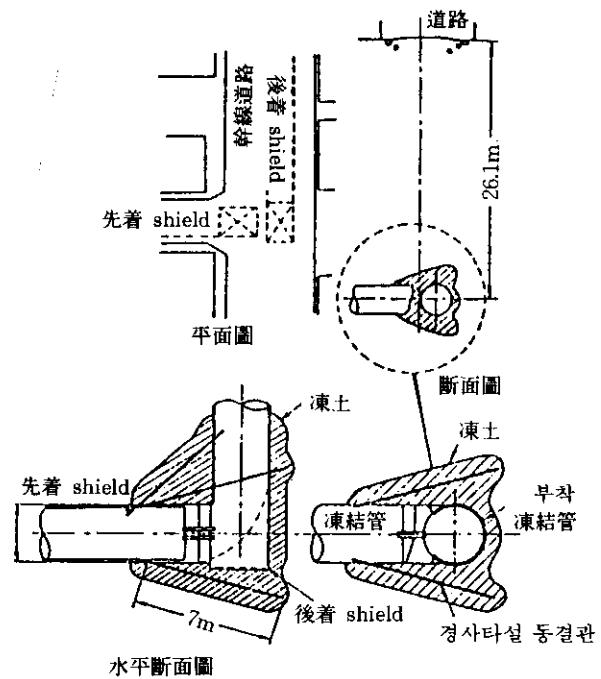


그림 24. 하수도관 Shield 공사에 이용된 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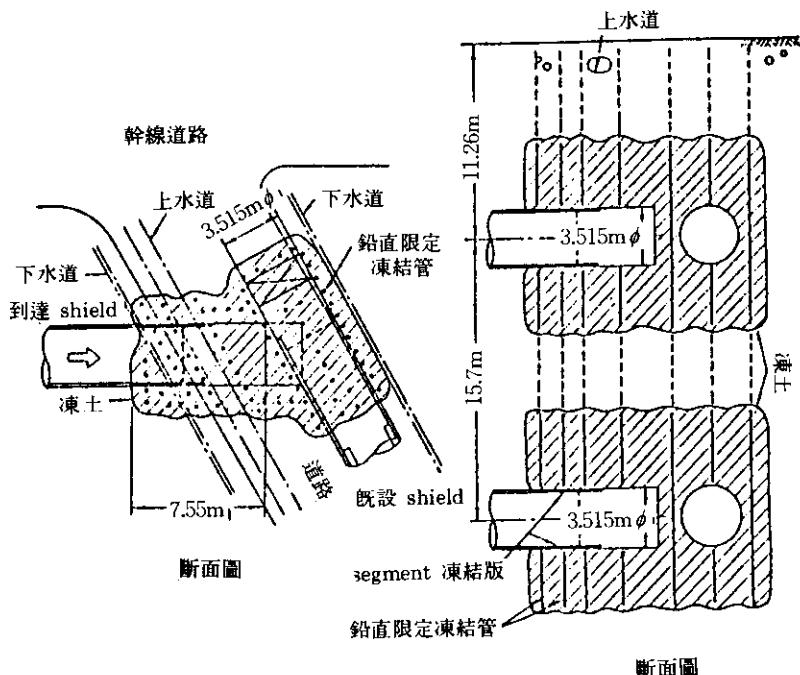


그림 25. 하수도관 Shield 공사에 이용된 예(4)

시공깊이가 깊다.

그림 26은 캐나다 칼륨광산에서 사용했던 예¹⁷⁾인데, 지하 400m부근의 帶水地盤의 76m 구간에만 동결공법을 이용하였다. 캐나다에서는 帶水細砂地盤에 인공동결공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장에서는 freeze station이라고 하는 확폭공간을 수직갱 중에 설치하고, 여기서부터 동결관을 boring에 의해 매설하고 있다. 지표면부터 수백 m에 달하기까지 동결공법을 이용한 예도 있는데, 이 때는 freeze station을 여러 개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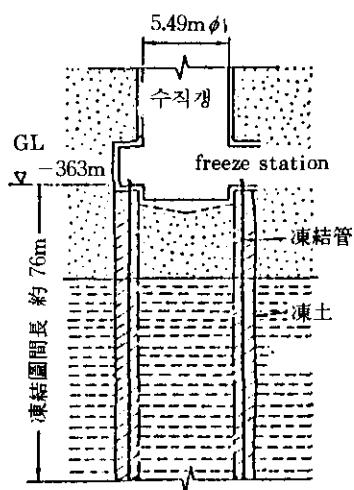


그림 26. 광산용 수직갱에서 사용된 예

6.5 그 밖의 特殊한 事例

그림27은 미국에서 호수바닥으로부터의 취수용 수직갱공사에 사용되었던 예인데¹⁸⁾ 호수 바닥을 동결해서 수직갱을 地中터널로부터 윗쪽으로 향하여 굽착한 것이 특징이다. 호수 윗부분으로의 동결관 매설을 위한 boring후에는,護岸에서 굽착한 호수바닥 암반중의 터널안에 동결장치를 설치하고 모든 공사를 호수바닥 밑에서 시공하였다.

그림28은 브라질의 26층 빌딩의 부동침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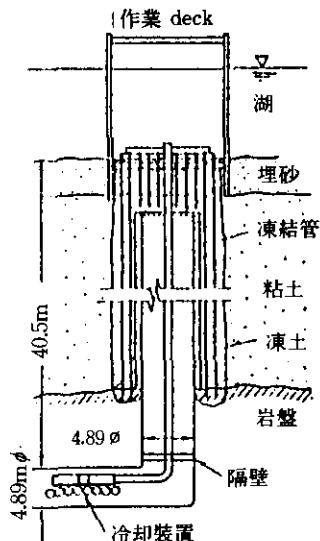


그림 27. 取水用 수직갱 공사에 사용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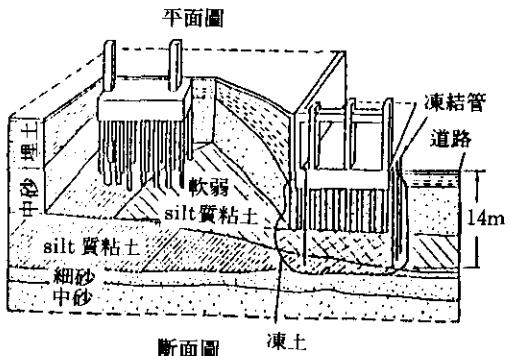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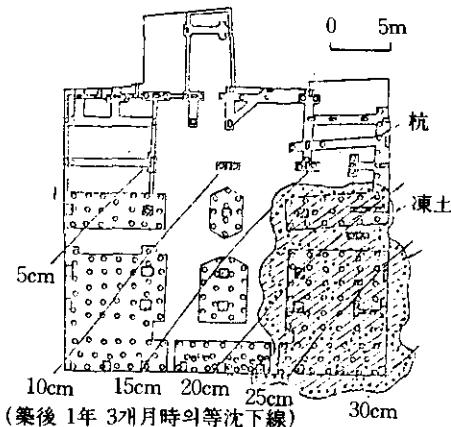


그림 28. 빌딩 부동침하 수정시 사용된 예

수정에 사용되었던 예이다.¹⁹⁾ 연약점토층 때문에, 1년간 20cm이상이나 침하된 부분을 1년 가까이 동결하면서 그 동안에 새로운 지지층에 도달하는 말뚝을 설치하였다.

그림 29는 미국에서 댐을 건설하기 위해 빙하 실트층의 流動을 정지시키고자 폭 36m, 깊이 6m 크기의 동토댐을 만든 예이다.²⁰⁾

그림30은 알제리에서 댐에 침전된 실트를 제거하기 위한 배출구건설에 쓰였던 예이다.²¹⁾ 댐깊이의 절반 가까이까지 초연약토가 매립되어 저수량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배출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나선형의 동결관을 집어넣고, 鐘모양의 동결장치를 댐의 상류쪽에 설치하여, 댐본체와凍着시킴으로써 하류쪽으로부터 boring에 의한 排出孔과 止水弁이 완성되기까지 방호를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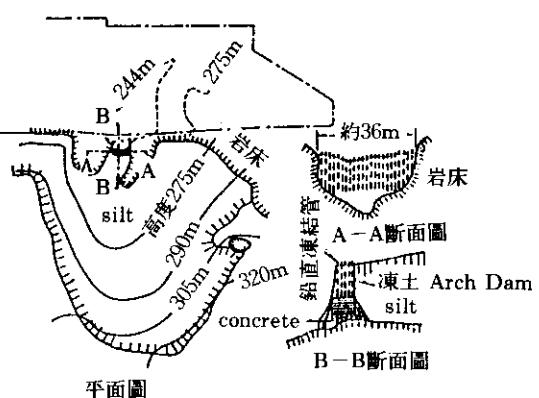


그림 29. 빙하층의 流動防止에 사용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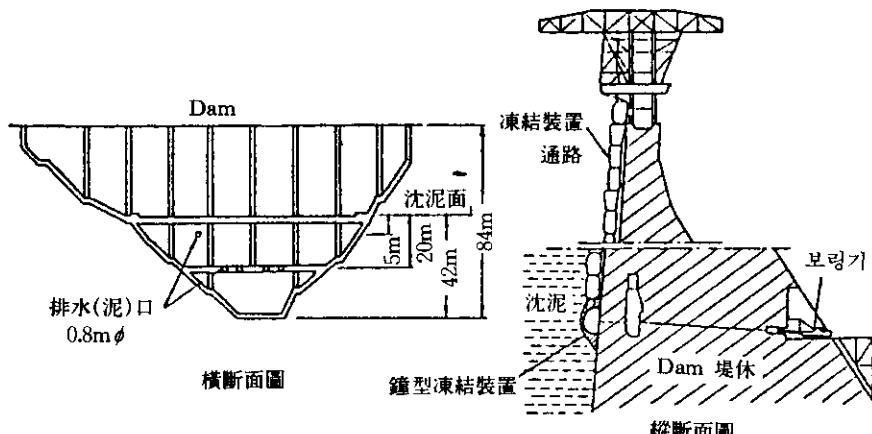


그림 30. 댐에 침전된 실트제거용 배출구 건설시 사용된 예

7. 맷음말

인공동결 공법은 1862년 영국 웨일즈의 광산용 수직갱 봉괴방지공사에 처음 적용된 이래²²⁾, 여러나라에서 광산용, 도시토목공사용으로 수

백 건 적용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최근 냉동설비 기술, 보링 기술, 현장계측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동결공법은 상당한 기술적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 분야도 하저횡단 지하철공사, 철도 및 도로횡단 매설관

공사, 월드공법 보조공사, 수직생 보강공사, 지하저장탱크 건설공사, 건물 부동침하 보수공사, 땅 배출구 건설공사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각종 지반굴착공사, 지하구조물 축조공사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반붕괴 사고가 잦은 실정을 감안할 때 본 공법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了戒公利, “人工地盤凍結工法”, 土と基礎, Vol. 38, No.8, p.48, p.53, 1990.
2. 日本土質工學會, “土の凍結—その制御と應用”, —土質基礎工學 ライブライー23, p.159, p.167, 1989.
3. 高知勤, 知用正八郎, “土壤凍結工法について”, 冷凍 Vol.36, No.408, pp.1~15., 1961.
4. 戸部暢, 秋元攻, “凍土内 温度分布式とその應用”, Vol.54, No.622, pp.3~11., 1975.
5. Foraky, “Artificial Ground Freezing”, Technical Note, 1421/86, 1986.
6. 戸部暢, 秋元攻, “凍上變位計算法(3次元)”, 第34回 土木學會年次學術講演會 概要集(Ⅲ), pp. 243~244, 1979.
7. 木下誠一, “凍土の 物理學”, 森北出版(株), p. 144, 1982.
8. 高知勤, “凍結膨脹による 未凍結領域内の 土壓と 變位の 經時變化”, 土木學會論文報告集 200, pp.49~62, 1972.
9. Jones, J. S. Jr., “Engineering practice in Artificial Ground Freezing”, The 2nd Int. Symp. on Freezing, proceedings, Norwegian Inst. of Technology, Trondheim, Norway, pp.837~856, 1980.
10. 小倉宏三, “地下鐵建設における 凍結工法の利
用” 土木學會誌, Vol.52, No.6, pp.35~43, 1967.
11. 村田浩 外, “神田川河底部の 凍結工法”, 土木技術, Vol. 27, No.8, pp.77~88, 1972.
12. 金安進 外, “日本橋川下の大断面凍結工法”, トソネルと地下, Vol.9, No.8, pp.23~30. 1978.
13. 丸地角衛 外, “國鐵軌道下および 河川下横断路工事に利用された凍結工法”, 土木施工, Vol. 10, No.5, pp. 82~87, 1968.
14. 岡田義勝 外, “凍結立坑と泥水シールドの到達および 発進防護の一施工例”, 第36回 土木學術講演會講演概要集, No.3, pp.494~495.
15. Takashi, T., Kiriyma, S. and Kato, T. “Jointing of Two Tunnel Shields Using Artificial Underground Freezing,” Engineering Geology, Amsterdam, No.13, pp.519~529, 1979.
16. Takashi, T., Kiriyma, S. and Akimoto, O., “Artificial Ground Freezing in Shield Work,” The 3rd Int. Symp. on Ground Freezing, Proceedings, CRREL, USA, 1982.
17. Scott, S.A, “Shaft Sinking Through Blairmore Sands and Paleozoic Waterbearing Limestones,” The Canadian Mining and Metallurgical Bulletin for February, pp.94~103, 1963.
18. Hampton, W., “Frozen Lake Bottom Permits Upside-down Shaft Drilling”, Construction Methods and Equipments, March, pp.106~107, 1974.
19. Villares, A.D., “The Underpinning of the 26-Story” “Companhia Poulista De Seguros”, Building, Sao Paulo, Geotechnique, 1956.
20. Gordon, G. “Arch Dam of Ice stops Slide”, Engineering News-Record, vol.118, pp.211~214. 1937.
21. Thevenin, J., “Refrigeration Used in Piercing the Steeg Dam”, ASHRAE, Jour., July, pp. 54~79. 1962.
22. Lightfoot, T. B. Proceedings, Inst. of Mechanical Engineers, London, p.238, 1886.